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17.

순찰(경비) 로봇이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조달청, AI 자율주행 기반의 순찰로봇 임대서비스 나라장터에서 공급 예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인공지능(AI) 기반 순찰(경비) 로봇 임대서비스' 공급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순찰(경비) 로봇은 AI에 기반하여 정해진 구역을 스스로 주행하면서 화재·안전사고·범죄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경보 등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은 순찰(경비) 로봇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달청은 이번 입찰 공고를 통해 '임대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조달 방법을 확대했다.

임대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장 수리 및 유지보수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어 공공기관은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배송로봇, 감성교감로봇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로봇서비스 임대서비스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첨단 기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해 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피지컬 AI의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에 공공기관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책임자	과 장	황외석 (042-724-7680)
		담당자	사무관	최문중 (042-724-72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